

종합·해설

문재인 지지한 정운찬·윤여준에 “정치창녀”

‘막칼럼’ 윤창중 대변인 적절성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 당선인 첫 인사부터 ‘극우논객’ 기용

“대통합 취지에 어긋난다” 야권 등 반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첫 인사부터 극우 논객인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당선인 수석 대변인으로 기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화두로 제시했던 국민대통합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면 민주당 등 야권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 수석 대변인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고려대 졸업 후 KBS 기자, 세계일보 정치부장,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거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그는 노태우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의 언론담당 보좌역으로 일하다 언론계로 돌아오는 등 권력과 언론 사이를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정운찬, 윤여준, 김덕룡 등 여권 인사들을 “정치적 창

녀”라고 거친 언사로 비판한 것은 물론 자신의 블로그에 “중북주의를 혁파하자”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노무현이 부양이바위에서 뛰어 내리는 순간 대통령 이명박에 맞서 벌인 사투는 대역전극으로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이념 편향을 부각하며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수석대변인은 정치권향적 해바라기성 언론인의 전형으로 극우보수적 가치관으로 극단적, 분열주의적 언동을 일삼아왔던 분”이라며 “박 당선인이 윤씨를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대통합이 아닌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통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독선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인사는 “국민대통합의 취지가 출발점부터 흔들리는 인사”라며 “첫 인사부터 논란이 되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내 인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인 인사를 해야 하는데 우려가 크다”며 “특히, 윤 수석 대변인에 대한 언론의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언론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과 관련, “전문성이 중요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인선을 했다”고 밝혀 임명 철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쓴 글과 방송에 의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많은 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글을 썼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14년 동안 쓴 칼럼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朴당선인, 인수위서 ‘김종인 카드’ 꺼내들까

‘경제민주화’ 상징 인물 인수위원장 중용 놓고 고심 관측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앞두고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중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지난 대권가도에서 김 전 위원장이 지닌 무게감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박근혜 비대위 출범과 함께 비대위원으로서 새누리당에 합류한 그는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대선캠프 행복추진위원장을 맡으며 박 당선인의 최대 조력자로 활약했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당의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성장에서 경제민주화로 전환하는데 앞장서면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화려한 경력만 놓고 보면 김 전 위원장을 유력 인수위원장 후보로 꼽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당내에서 경제민주화의 목소리가 부쩍 수그러든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대두하는 대의 여건을 근거로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구도다.

언론에서 인수위원장 후보군에 함께 거론되는 진남·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도 경제민주화 의제에선 김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

당내에선 과도한 경제민주화를 견

제하는 조짐도 나온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내가 인수위원장이라면 (기존순환출자 문제를) 절대 논의하지 않는다”면서 빠이는 농담을 던졌다.

이는 박 당선인에게 김종인 중용이 경제위기론 속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지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카드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당장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안팎의 인수위원 명단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박 당선인이 김종인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창신동 창일경로당에서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앞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朴당선인 쪽방촌 성탄절 봉사활동

이들째 민생행보...오늘 전경련 방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 구성 등 새 정부 구성에 몰두하며 조용한 행보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 관악구 난곡동을 찾아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한데 이어 이들 연속 민생현장을 찾은 것이다.

그는 이날 서울 창신동의 한 경로

당에서 ‘근혜동산’, ‘근혜사랑’ 등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1회용 도시락을 만든 뒤 인근의 쪽방촌을 찾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직접 배달하고 위로했다.

그는 도시락에 직접 호박볶음을 담으면서 “(성탄절은) 모두 즐거운 날인데, 이런 날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도시락 선물을 드리면서 그분들과 같이한다는 따

뜻한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좁은 쪽방에 직접 들어가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면서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면서 “새해에는 더욱 편해지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26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 사옥 회의실에서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구성된 회장단과 경제 전반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을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비서실장·대변인 인선으로 본朴당선인 인사 스타일

‘전문성·화합·민생’ 적합성 중시

의외의 인물…‘깜짝인사’ 평가도

는 질문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특히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뤄진 당선인 비서실장·대변인 인선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중

요하고 그 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인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장에 조세와 재정, 복지 전문가인 유 의원을 발탁한 데에는 자신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민생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세와 재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당선인의 뜻을 잘 좇아 인수위와의 원활한 조율을 통해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애가다.

조운선·박성규 대변인 인선도 계파를 탈피한 능력 부위 인사로 해석된다. 조 대변인은 18대 당시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고, 박성규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낸 친이계 인사다.

지역적으로는 영남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 2명, 충남과 호남 각 1명씩 임명하면서 균형을 고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향후 인수위 인선에 대해서도 박성규 대변인은 이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도 않는다”라며 “인수위 인선 과정에서부터 대통합의 의지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은 서울 삼성동 금융연수원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박 당선인 집무실은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결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자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사법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행동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 종 원 이사 010-8227-7759	
물류센터 [전북김제] 대8076㎡,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공장 [울진동] 대2315㎡, 건1542㎡ 감정가 22억 최저가 14억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감정가 39억8천 > 매매가 25억5천	화정동 [창기외예식장]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감정가 41억5천 >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주유소 [나주남평] 대4428㎡, 건5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신안읍해 [횡집, 판매] 대4706㎡,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3289평 > 건물 1601평 > 감정가 52억4천 > 매매가 36억7천	운암동 [근린시설] 대지 362평 > 건물 1047평 > 감정가 39억5천 > 매매가 27억7천
원동 [계림동] 대333㎡,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상기 [신창동] 대 67㎡, 건 134㎡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1천	목포 상동 [속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여수학동 [근린상가] 대136평 건513평 감정가15억 최저가 10억5천
공장 [나주공신] 대29710㎡,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속박시설 [치평동] 대704㎡,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무안 망운 [속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	구례 용평 [공점] 대1295평 건363평 감정가13억 최저가7억4천
공장 [장성동화] 대1983㎡,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임야 [전주완산]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화순 도곡 [무인텔] 대190㎡2,262㎡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1697 건204평 감정가88억 최저가62억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1697 건204평 감정가188억 최저가62억	북구 용평동 [공점] 대700평 건423평 감정가22억7천 최저가14억6천	영광법성 [근린상가] 대1106평 건1297평 감정가134억8천 최저가24억4천	서구 치평동 [속박시설] 대213평 건617평 감정가132억 최저가22억4천

● 함께할 운영자 및 연회원을 모집합니다

임대 및 매매 감수회 공판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 오픈 예정인 (주)솔향기닷컴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 찬모(여)2명, 설것이(여)1명, 홍서빙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 이상에서 50억
- 모텔 및 묵옥
- 고시원
- 다가족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 용도지역: 자연농지 ● 용도 : 주차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농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농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청고용도로 적합
- 비포장 자연농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향평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하기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경매 NPL물건 특수물건

- ▶ 비법 배유면서 투자
- ▶ 1:1 개인 스터디
- ▶ 1인 1물건 추천
- ▶ 회비 1,100만원

투자자몹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투자금 1억원 이상
- ▶ 기간 : 1년 정도
- ▶ 법적 보장/지분 등기

(주)오천경매 H.010-3605-5000